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 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오바다서**

에돔의 죄 II

(오바다 1 : 10~14)

원로목사 **이중윤**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해하려 하고 그들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의 죄입니다.

성경은 항상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돌보지 않는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에게는 형제성(brotherhood)이 결여되었습니다.

1. 형제성의 결여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10절).

오바다 선지자가 지적하는 에돔의 죄는 형제성의 결여입니다. 에돔은 교만했고 형제를 천대했습니다.

“너는 에돔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신23:7)고 하나님은 형제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했고 그들에게 포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unbrotherliness’라고 합니다.

에돔의 별명은 '살인자', '속이는 자'입니다. 이들은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에돔의 죄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5:8)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형제를 소중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가 무슨 일을 하던, 그들이 혹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해도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공산국가에서는 형제도 부모도 고발 합니다. 이것은 성경 진리와 위배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실수를 비롯거나 기뻐하고, 형제의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네번 함락 당했는데 그 중 두번이 에돔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돔은 항상 유대민족에게 가시였습니다.

2. 죄는 성장한다

어린이의 키가 자라듯 죄도 성장합니다. 교만했던 에돔은 이스라엘을 시기했고, 시기심으로 인하여 에돔은 강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죄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죄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작은 일이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합니다.

다윗의 죄는 본래 게으름으로부터 왔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은 궁궐에서 쉬고 있다가 담 넘어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음란한 마음이 들어 간음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은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 나중에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예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11절).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으니 이것은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형제가 배고프고, 고난 당하고, 고통 중에 처해 있을 때 나오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에돔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형제와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행위는 가인에 의해 생겼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할 것입니다. 형제간에 서로 돌보고 우애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12절).

에돔은 형제를 방관할 뿐만 아니라 형제의 불행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불행을 당할 때 구경꾼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13절).

하나님께서서는 형제가 환난을 당할 때 그의 재산을 주머니에 넣는 악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3. 하나님께로 성장하라

“네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14절).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의 죄를 하나 하나 열거하다가 형제를 원수에게 고발하지 말라고 합니다. 겐손의 허리띠를 띠고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철학은 형제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이었고, 결국은 그 통치철학을 따라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고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좇아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전교인

서울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역사해 주소서!

일일수련회

주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느1:3)
대상	서울교회 전교인
일시	2017. 9.16(토) 오전 10시~오후 3시 30분
장소	서울교회 본당



신천지(이단)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적발시 예매 및 설교 방해죄(형법 제 192조), 퇴거불응죄(형법 제 319조 2항), 업무방해죄(형법 제 314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광환 장로 조기 시무복귀 당회 허락

9월 6일(수) 회집된 우리교회 정기당회는 안식년 휴무 중인 오광환 장로의 조기 시무복귀를 허락하였다.

Soli Deo Scriptura!

9월 16일! 서울교회 성도는 개인적인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남녀노소 모두 비장한 심장이 되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나아와 사생 결단하며 반드시 서울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더 미룰 수 없다. 이제는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한다.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간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조지일관 성실한 지도자였다. 그는 언제나 동료를 돌봐주고 끝까지 인내했다. 우리 모

두는 중간지도자이다. 나는 누구에겐가, 누군가는 나의 지도자이다. 우리는 피차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인내하며 무너진 서울교회의 성벽을 수축해야 한다.

느헤미야 곁에는 에스라 학사가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유대를 대대적인 종교개혁으로 이끌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서울교회가 살 길이 없다. 아니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

2017 전교인 일일수련회 기도제목(요일별)

주 일 (나라와 교회를 위해)

-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 대통령과 각계 지도자들이 국민을 바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 이 땅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안정되게 유지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법과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정책들과 방안들이 최선으로 마련되게 하소서.
-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기적적으로 이루게 하소서.
- 한국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와 영적각성이 일어나고 각 공동체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 이 땅의 청년들이 말씀 가운데 서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의로운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 성도들이 이 세대를 분별하며 복음에 대치되는 사상과 문화적 습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하소서.

월요일 (일일수련회 전체를 위해)

- 전교인 일일수련회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집회가 되게 하소서.
- 말씀을 전해 주실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특강을 하여 주실 서창원 목사님, 이규민 목사님, 박순오 목사님께서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건강과 일정 가운데 위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붙들소서.
- 말씀을 통해 참가자들의 영적 갈급함이 채움 받게 하시고 참된 교회 회복의 열정을 새롭게 하소서.

4. 섬기는 준비위원들의 영육이 강건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5. 수련회 참가자들이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6. 수련회 전체 재정이 규모 있게 사용되고, 많은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7. 차량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져, 당일 주차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소서
8. 수련회 모든 일정이 사랑과 섬김, 질서 가운데 움직여지게 하소서.
9. 기도로 섬기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소서.
10. 수련회 집행부에 지혜를 주셔서 전체 수련회 기획과 진행이 순조롭게 하소서.

화요일

(원로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위해)

1. 원로목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끊이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소서
2. 부교역자님들 오직 진리의 편에 흔들림 없이 서시도록 하시며, 더 겸손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수요일 (특강을 위해)

1. 특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하소서.
2. 강사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각 특강을 위한 준비를 최선으로 감당하며 개개인의 지적·영적 필요가 채워지고
3. 오전, 오후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의 참된 교회 회복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게 하소서

목요일 (당회원을 위해)

1. 당회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 모든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소서.
2. 오직 첫사랑의 감격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참된 교회로의 회복을 위한 길을 가게 하소서.

금요일 (일일수련회 지원을 위해)

1. 내·외부 경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각종 집회 및 교육이 질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2. 참석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련회에 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안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3. 수련회를 위한 신실하고 충성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4. 수련회 전체 재정이 규모 있게 사용되고, 많은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5. 수련회 홍보가 극대화되어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더욱 풍성한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토요일(재시무투표와 개인 기도)

1. 서울교회 역사를 뿌리채 부정하는, 교회정관을 무효화 하려는 저들의 악한 계획과 도모가 온 교회앞에서 날날이 밝혀져 약속한 안식년에 따른 재시무투표가 정당하게 시행되어 건강한 서울교회로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2.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의 소유권, 사용권, 회수권, 감사권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3. 말씀과 기도의 깊이를 더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하소서.
4. 수련회를 위한 기도운동을 통하여 서울교회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 참된 교회로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활발히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각 사람과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명기도용, 공문서 위조까지



전교인 일일수련회

빼앗길 수 없는 유산

신동기 권사 (시인, 12교구)

그날
당신 심장에 떨어진
볼씨 하나
하늘은
몇 번이나 눈물에 잠기었는지

아직 그날의 울음도 그칠 새 없이
가신 님들
시린 무릎에 주먹만 한 눈물로
밤새 붉은 벽돌 지어
성전 벽을 이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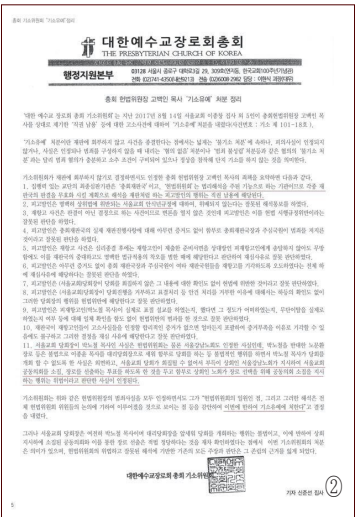
외환위기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마른 깃털 바짝 세워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더니
영광 중 하늘 문 열리고
복음으로 지구를 불태우던
서울교회여!

오늘도
거짓된 세상 한복판
높이 매달려
역살 잡힌 심자가 손, 발
다시 못 박는 너

흐르는 보혈
빈 강단으로 흘러
돌계단으로 넘치게 출렁이며
피붙이들 가슴속으로 흘러 들어가
찢어질 듯 목매어 울부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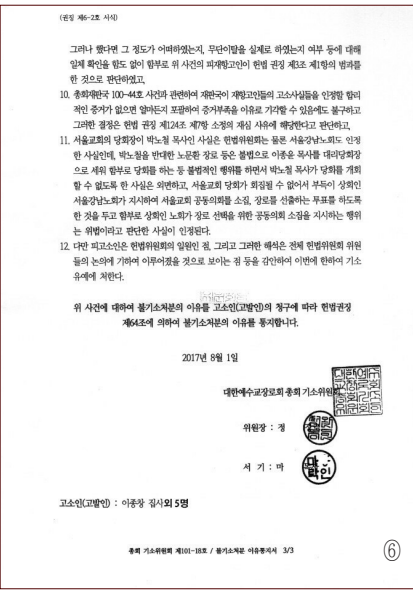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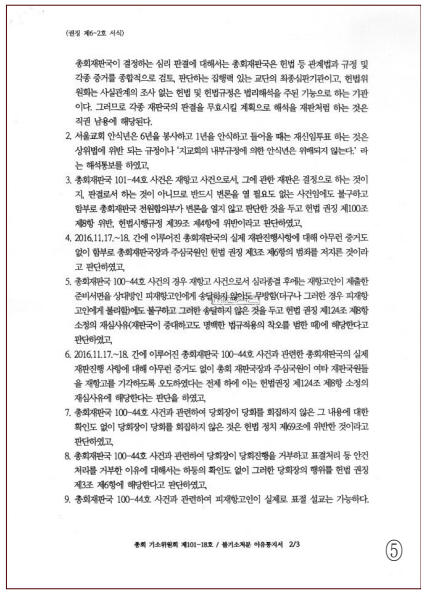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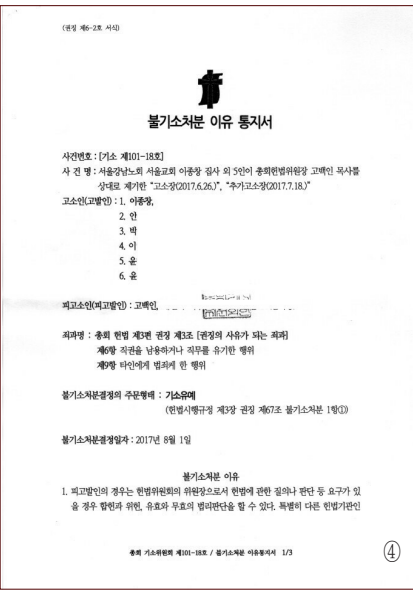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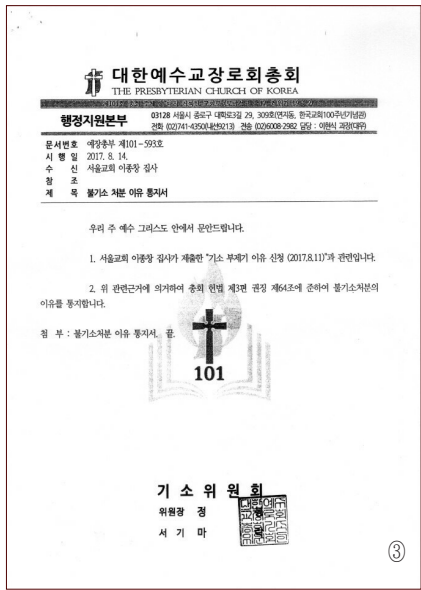
무너진 말씀의 성벽을 수축하라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수축하라
무너진 눈물의 성벽을 재건하라
무너진 화평의 성벽을 재건하라
저마다 느헤미야의
통곡, 금식으로 한 몸 되어

빼앗길 수 없는 유산
마지막 순종하는
서울교회의 통곡이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상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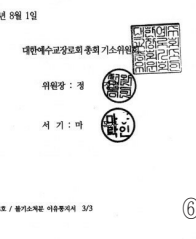


지난 주일 박노철 목사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브니엘'이라는 회보에 다음과 같은 위조된 총회 공문이 실렸다. 공문의 내용은 지난해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서울교회 담임목사 안식년 및 재신임제에 관한 것에 대해 이종* 집사의 5인이 헌법위원장을 상대로 총회 기소위원회에 제기한 고소장과 추가고소장에 관한 불기소처분 이유 통지서인데 4장으로 된 공문을 한 장으로 압축하여 요약하는 가운데 **공문에는 전혀 없는 내용과 단어를 첨삭하여 내용을 위조하여 날조 하였고 명의를 도용하였다.**

아래 ③ ④ ⑤ ⑥ 사진이 총회 공문 원본이다. 위 공문의 내용은 **총회 헌법 사항은 헌법위원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할 권한 있고, 기소위원회는 그 판단에 구속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위원회를 두고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재판국의 판결 중 헌법 사안에 대한 법적 견해만 담은 것이므로 아무런 위법이 없고, 오히려 확실한 근거도 없이 헌법위원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시킬 계획이었다고 단정한 기소위원회가 직권 남용을 한 것이다.**



- ① ② 지난 9월 3일(주) 박노철 목사가 발행인으로 발간한 브니엘이라는 유인물에 실린 총회 공문이라고 위조, 명의 도용 된 문건
- ③ ④ ⑤ ⑥ 총회 공문 원본



천국시민 양성 - 호산나대학 소식

호산나대학,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 5명 취득

호산나대학 노인케어학과 박원형, 김희창, 김태민, 김병준, 전명수 학생이 2017년도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을 준비했고 교수님과 부모님 응원 덕분에 이번에는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요양병원에 꼭 취업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2010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후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 자격시험체로 변경되면서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지만 2014년 이후 본 대학에서 14명의 요양보호사 합격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한 박원형(노인케어학과 3학년)군은 "시험이 어려워 2번 실패했는데 이번 3번째 시험을 위해 방학 중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시험

발달장애인 노인케어 특성화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호산나대학은 최근 11개 노인병원에 17명의 졸업생들이 장기간 근무하고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물론 산학연계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인력 양성하는 발달장애인 취업사관학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애견케어학과 학부모 기부금 13,300,000원 넘어서

지난 3월 개설된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으로 이어진 기부금이 13,000,0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라이, 건조 등을 할 수 있는 실습실이 만들어졌고 학생들이 애견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부모님들께서 수업을 참관하시고 애견케어학과 시설 투자와 장비보강 등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호산나대학 박민재학생 부모님이 100만원, 김세은학생 부모님이 100만원, 부모지회에서 160만원을 애견케어학과에 지정기부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애견케어학과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애견관련 전문 인력이 양성을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기부금을 통해 애견 샤워시설, 드

제 13대 총학생회 이·취임식

9월 4일(월) 호산나대학 제 13대 총학생회 이·취임식이 본교 중강당에서 진행되었다.

13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김남주(서비스학과) 학생은 "제 13대 총학생회는 학생들 간의 화합을 추구하며 항상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며 취임사를 전했다.



유·초등부 가을 성경학교

10월 22일(주) 오전 11시~오후 4시

유초등부에서는 10월달에 가을성경학교를 10월 22일 (주) 오전 11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그동안 짧아진 유초등부 시간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있었다. 이에, 10월 22일 하루 시간을 잡아서 즐겁고 재미있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바란다.

2017 성경 암송대회

범위: 베드로전서 1~5장

본선: 10월 13일(금) 오후 7시

2017년도 성경암송 본선은 베드로전서 1-5장이다. 예선은 10월 1일(주일)에, 본선은 10월 13일(금) 오후 7시에 시행한다. 교육1국에 한하여 미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장을, 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3장을 암송한다. 암송 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은 NIV(1984년 개정판) 성경으로 한다.

한편 성경암송대회 전까지 수요일예배 설교를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다.

동 정

■ 부임: 12교구 서완지(서상근 집사 김예환 권사의 장녀) 싱가포르南洋 Technology University 연구원

■ 금주의 식사: 서상근 집사 김예환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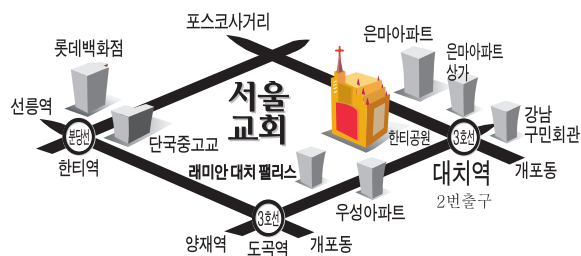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이라는 주제로 9월 16일(토) 오전 10시 본당에서 모이는 전교인 일일 수련회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2. 다락방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우리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3. 우리나라가 법과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웨 스트민 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